

어머니의 베갯잇으로 꿈을 꾸다

“군포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처한 상황과 정책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연이나 행사에 몇 명이 모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파동을 주는가가 관건입니다. 큰 규모의 행사부터 토요일, 일요일 철쭉동산이나 중심상가의 광장에는 공연을 보며 행복해 하는 사람, 환호성을 지르는 청소년들, 병원환자복을 입고 또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의 공연을 즐기는 사람 등 많은 시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다, 수고한다, 라며 격려를 해 주는 데서 예총회장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군포시가 시상하는 스물두 번째 ‘군포시민대상’의 문화·예술·체육 부문 수상자는 강희진 사단법인 한국예총 군포시지회장이었다. 그동안 철쭉축제와 독서대전,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및 일요예술무대 등의 공연과 행사를 잘 이끌어 군포의 문화 예술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참 열심히 발로 뛰고 땀 흘렸다. 7년 간의 미술협회 지부장을 거쳐 2012년 군포예총 회장으로 취임한 후 예술행사가 펼쳐지는 군포시 곳곳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저력을 보여준 강희진 회장.

그가 앞서서 이끌고 있는 군포예총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예총은 총 8개의 예술문화인 회원협회(국악, 문인, 음악, 미술, 사진, 무용, 연극, 연예)의 연합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으며 장르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작 및 공연 활동에도 시대의 요구는 달라지고 있지만 특히 시의 문화예술 전반을 책임져야 할 예총에 대한 기대도 자못 크다. 강희진 회장은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그는 2012년에 이어 2016년에 재선되어 연임의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되어 정말 기쁘고 그 간의 수고를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 드리며 한편으로는 책임이 더욱 막중해짐을 느낍니다. 함께 해온 예총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군포의 문화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예술문화인들의 수장이라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회장직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가 재선된 후에 한 인사말이다. 예술가가 고독하다는 말은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 시대는 모든 예술 분야에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감동과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이끌어 내며 넓게는 장르 간 넘나들며 인정하며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역시 회장을 비롯한 예총 회원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조화와 통합, 융화와 통섭의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때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일상에 지친 군포시민들이 중심상가 이마트 앞에서, 분수대 앞에서 또는 철쭉동산과 초막골, 반월호수 곳곳에서 예총이 만들어낸 여러 공연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희망을 꿈꾸었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강회진 예총회장의 역할이 있고 그는 지금까지 잘 해 왔다.

철쭉이 테마가 되다

강회진은 예총회장이기 이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다. 미술협회 지부장을 7년간 하기도 했으나 그의 더 이전의 본분은 자신의 창작품을 그리며 문화센터 제자들에게 그림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몇 년 동안 보아온 강회진 작가의 그림은 심상치 않았다. 특히 짙은 색감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그림 속의 꽃은 그냥 꽃이 아니다. 꽃 위에 피리가 놓여 있으며 풀꽃더미로부터 날아온 작은 나비에서부터 커다란 날갯짓을 하는 노란 나비가 있고, 선으로만 이어진 나비 형상도 있다. 그리고 그 꽃과 나비와 피리를 담고 있는 바탕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분명 사실화는 아니다. 이 그림이 표현하는 세계에 대해 작가에게 물었다.

“그림 하면 멋있는 산이 있고 풍경이 있는 것을 떠올리는데 저는 그런 사실적인 자연을 그리고 싶지 않았습시다. 내 마음 속, 기억 속의 생각을 꿈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5~6년 정도 꿈에 대한 테마를 잡고 그림을 그렸지요. 안건의 몽유도원도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릉도원을 화면 속에 그려 넣고 싶었다고 할까요.”

또 다른 그림 속에도 꽃이 등장한다. 수리산의 소나무를 표현한 것일까. 소나무에 매달린 철쭉꽃! 그것은 분명 추상이었다. 역시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은 짙고 푸른 심연의 바탕이다. 규정할 수 없는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강회진 작가는 그 무의식 속에도 늘 철쭉을 그렸다. 군포의 꽃 ‘철쭉’, 해마다 4월 중순이 되면 피기 시작하여 5월 초입 철쭉동산을 뒤덮는 철쭉이 그의 주요 테마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꿈에 대한 테마로 철쭉을 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장미도 그려보고 아름다운 여러 꽃을 그려보았지만 섬세한

그의 필치로 내면의 환상을 그려내기에는 철쭉이 가장 와 닿았다는 것이다. 꽃이 테마가 되고 꽃 속에 환상적인 꿈을 담은 작품을 계속 그려나가는데 언젠가 대작을 만들어 군포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전시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짙은 색감과 섬세한 필치로 인해 그림이 여성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예술의 세계를 여성적, 남성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선과 색의 내면에 자리한 환상적 공간을 볼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작가는 남다른 작업환경을 선호한다. 즉, 그림 작업을 할 때 주변이 정리정돈 되어 있어야 하고 붓이며 팔레트가 깨끗해야 한다. 붓을 잡는 그 순간만큼은 화면에 몰입해야 한다는데 평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의 성정을 알 수 있었다.

유년시절, 어머니의 베갯잇으로부터 나온 꿈

화가 강회진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많은데 지금은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지도해 온 지 24년째이다. 그 동안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재능을 인정받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써 지친 일상을 위로받았다. 어쩌면 화가 강회진의 꿈은 그들과 함께 꾸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미술협회 단체전시에 그의 제자들이 늘 큰 성원을 보내며 축하꽃다발을 건넨다. 그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강회진 작가가 그림을 시작한 것이 언제일까 궁금해졌다. 그는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감수성 이야기를 하였다.

“그림의 소재나 테마를 정하면서 유년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가 말하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김장하는 날이 동네 잔칫날이 된단는지, 겨울밤 고구마에 동치미 국물을 먹고 이불 밑에 발을 함께 집어넣고 밤을 새가며 노는 걸 얘기해 주었는데 그 정서를 잘 이해 못하더라 말입니다.”

유년을 시골에서 보내는 것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거기에 명태를 넣고 또 김장독을 파묻고 하는 옛날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그는 영락없는 전라도 소년의 모습이다. 지금도 아내에게 꼭 김장을 직접 하게 하고 만두를 빚게 한단다. 그런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살아가는 데 매우 크다며 빙긋이 웃는 모습이, 섬세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과 많이 겹쳐진다.

강회진 작가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초등학교 때이다. 시골 향교 옆에는 활터도 있었고 누각 위에서 창도 가르쳤다. 작가의 아버지는 하얀 모시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뒤늦게 본 막내아들 회진을 앞세우고 다니는 한량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향교에 가서 난을 그리다가 어린 그에게도 화선지 위에 난이파리를 쳐 보게 했다.

인터뷰 | 1. 군포시민대상 수상자 - 강희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선생님이 칭찬을 해 주셨다. “너 계속 할 거니?” 아버지가 물었다. “네!” 칭찬을 받아 으쓱해진 그가 대답했다.

그는 그림을 잘 그려서 김제 시골중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시골 김제에서 그림으로 3년 특기 장학생이 되어 이리(지금의 익산) 남성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 당시 전북에서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늘 상을 받곤 했는데 서울로 올라와 추계예대 미술과에 들어갔다. 그는 추계예대 1회 졸업생이다. 당시 교수님들의 충애를 많이 받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는 힘든 유학생살을 하게 되었다. 동국대에서 석사를 하였지만 힘들었던 추계예술대학 시절이 더 생각나는 것은 춥고 배고팠던 시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갖고 오신 김치만으로도 그는 한 달 내내 버틸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랑을 92세에 끝내고 돌아가셨다.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노량진 학원 미술강사

그가 노량진에서 입시학원 미술강사를 하고 있을 때 안양에 살던 아내를 만났다. 아내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동생을 아끼는 처형과 처남들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내 동생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 세상 물정 모르는 그가 대답했다.

“저는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좋은 화실을 하나 갖고 제 작품을 그리는데 꿈입니다.”

한마디로 전업작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걱정하며 결혼을



강희진 작가의 아버지는 김제 부농의 아들이었다. 당시 고깃배가 세 척이나 있었고 가지고 있던 농지도 꽤 넓었다. 그러나 농한기에 노름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급기야는 육십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그 때문에 작가의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뒤늦게 본 막내아들의 학비를 마련하느라 날마다 샅바느질을 하셨다. 다행히 손재주가 좋아서 명절을 앞 둔 때에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며 바느질을 할 정도로 어머니의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작가의 어머니가 만든 밥상보, 버선, 베갯잇 등은 고운 빛깔에 섬세하고 예쁜 수를 놓아 누구나 갖고 싶어했다. 강희진 작가가 어머니의 그런 솜씨를 닮은 것이 아닐까, 어머니가 수놓으신 베갯잇을 양분으로 화가의 꿈을 꾸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막내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남달랐다. 그가 북아현동 골짜기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늘 손수 준비한 밑반찬과 김치를 보따리보따리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셨다. 어머니가

반대했다. 그런데 장모님이 말씀하셨다.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둘이 살아라.”

장모님의 든든한 후원으로 아내와 결혼 할 수 있었고 안양 장내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성당은 아내를 만난 후 다니게 되었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다가 간 곳이 성당이였다. 어느 성당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곳에 피어 있던 꽃이 정말 소담스럽고 성스럽게 보였다. 아무래도 강희진 작가는 꽃과 매우 깊은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꽃에 정신이 팔려 들어선 성당을 지금도 일요일이면 아내와 함께 찾는다.

시민대상 수상자로서의 영광과 앞으로의 행보

재선 2년째의 임기로 접어드는 예총회장으로서 앞으로 예총이 좀 더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곳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다. 강희진 예총회장은 새로움과 책임감을 답했다.

“미술협회 지부장을 7년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공론을 일삼는 지부장 역할보다는 발로 뛰는 미술협회 지부장이 되고 싶었지요. 수리산의 꿈전,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대한민국중심작가전, 군포아트페어 등 시민들에게 미술작품을 감상,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좋은 장을 만들어 주고자 나름대로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또 예총회장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겠죠. 내가 잘못하면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예총 8개 지부와 함께 군포시민들이 늘 새롭고 뭔가 예술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은 오늘 가장 좋아야 한다. 하지만 내일도 예술은 계속된다. 오늘과 같은 좋음보다는 새로움이 있어야 하고 예술가들은 그 새로움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강희진 예총회장의 새로움에 대한 인식은 예술가로서의, 즉 화가로서의 정신을 담고 있고 자신의 책임에 대한 철두철미함은 예술인협회의 장으로서 견지해야 할 자세이다. 물론, 군포시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한 역할을 예총이 모두 맡아서 할 수는 없다. 군포문화재단의 정책영역이 확대되고 생활예술동호인 단체 활동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군포예총이 문화예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총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힘든 점이나 아쉬운 점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지요. 문화예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안양, 안산, 과천 등 인근 도시에 비해 군포는 많이 열악합니다.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예총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술행정의 본령은 결국 시민들이 좋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술인들도 그 점을 늘 염두해 두어야 하지요.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예총이 군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하는 길 위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강희진 예총회장은 그 플랫폼의 역장이 되어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역시 발로 뛰고 있을 것이다.

대담 및 글 오은희





군포 문화예술계의 대명사, 박헌태

2016년 7월 박헌태 시인의 제16시집 『세상의 문』 출간을 기념하는 문학콘서트가 산본도서관에서 열렸고 많은 문인들이며 지역의 인사들이 모여 시집출간을 축하했다. 문단의 후배로서 최근 들어 해마다 시집을 내는 노시인의 열정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북콘서트에서 쓸 영상을 만드느라 박헌태 시인의 초기 시집이며 사진을 정리하노라니 평생을 시인으로 살아온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었다. 박헌태 시인은 파독 광부로 독일에 건너가 그곳에서 쓴 시를 모아 출판한 『미완의 서정』을 첫 시집으로 『세상의 문』까지 총 16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그런 열정의 소유자인 그가 군포로 이사 온 후에는 중앙 문단출입보다는 군포에서 문인협회와 예술인총연합회를 이끌며 지역의 중심 문인으로, 예술인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런 거창한 일이나 직함보다 더 뜻 깊고 의미 있는 그의 숨은 공로라면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합평 수업을 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당당한 시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운 일을 빼놓을 수 없다.

군포문인협회의 태동기

산본 신도시 주민 입주가 한창이어서 매우 어수선한 시기였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헌태 시인도 그런 사람 중 하나로 1993년 이사를 하고 보니 군포에는 한 사람의 지인도 없었다. 그때 사람들은 산본 신도시를 ‘베드타운’이라 불렀다. 이주민 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라보니 일상의 일들이나 친교 관련 모임도 산본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군포시청 공보실 담당자가 박헌태 시인에게 연락을 해왔다. 알고 보니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몇몇 문인들을 불러 모은 것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첫인사를 나누고 차를 한잔하면서 문인협회를 태동시키자는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수소문하여 얻어진 명단이 바로 군포문인협회를 발족시키는 발기인이 되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고경숙, 권태진, 권영기, 김명원, 김상일, 김순덕, 김용진, 김용하, 김은미, 박헌태, 염화출, 윤모춘, 이영옥, 이옥분,

이진호, 임헌영, 전현하, 정진숙, 정필완, 채찬석, 홍사안, 홍순창 등이었다. 1995년 7월에 (사)한국문인협회 군포시 지부를 결성 발족하여 중심상가에 사무실도 마련하였고 초대회장은 김상일 평론가, 부회장은 박현태 시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김상일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부득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김우중 평론가를 추대하였으나 극구 사양하여, 결국 박현태 시인을 재추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문협을 성장,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가 능히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박현태 시인의 심성이 푸근하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으며, 무엇보다 문학에 대한 열정과 문인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초창기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 대한 주변의 평이다.

군포문인협회는 첫 사업으로 협회 기관지인 『시민문학』을 군포시의 지원 하에 연간 4회 발간기로 하고 편집진을 구성, 서둘러 원고를 모아 그 겨울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창간호 머리에 『시민문학』의 목적을 밝히는 '시민의 시대, 문화의 시대를 열어갈 견인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속의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 앞에 서 있다. (...중략...)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영혼의 단련술로서의 문학은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정신문화의 권능을 회생시켜야 할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는 계간지 『시민문학』을 발간하기로 한다.'

박현태 시인은 당시를 이렇게 술회하였다.

“ 위 창간사는 지금 다시 읽으면 새삼스럽기도 하고 웃음이 납니다. 열혈 청년들이 토하는 열변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의 치기와 당시의 순수가 금석지감으로 다가 옵니다. 되짚어 보니 주마등같이 지나간 일들이 20년이란 세월 저쪽으로 부터 되살아납니다. 어제 같은데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조그만 신도시가 인구30만이란 큰도시가 되었고 우리 군포문인협회도 회원이 7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외형만이 아닌 세대와 문화도 참 많이 바뀌고 변하여 그때의 일들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 같습니다.”

당시 군포시는 지방자치시대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였기에 기반이 약했고 경험의 축적도 거의 없었다. 그렇다보니 문화단체로 처음 발족된 문인협회가 시당국으로서는 차츰 낯설고 성가신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박현태 군포문협 지부장이 주축이 되어 중심상가에 군포문인협회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벌였다. 『시민문학』을 계간으로 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고 '주부 글짓기 교실' '어린이 글짓기교실' '시민백일장' '어린이 시화전' 등 시가 경제적인 지원이나 장소라도 제공해주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적잖이 불안해 보이기도 하여 시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시민문학』은 두차례만 지원해주고 중단된 시의 지원금 문제로 박현태 시인은 시장에게 항의를 하면서 시와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졌다. 이러 와중에도 군포문인협회가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생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수리샘 수강생들과 어린이 글짓기교실 수강생들에게도 최소의 강의료를 받게 되었는데 수강생이 밀릴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수강료가 문협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2~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문단의 중견 원로들이 속속 이사를 와 합류가 시작되었고 군포문협은 한층 활력을 얻었다. 원로 시인 박정희, 김동호, 이경희, 소설가 박순녀, 평론가 신동한, 조병무, 김우중, 수필가 윤모춘 선생 등이 자리를 채워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사)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지부가 되었고 이듬해 경주에서 열린 한국문인협회 가을 세미나에서 박현태 시인은 지부장 자격으로 불려나가 만장의 박수로 치하를 받았다.

한동안 문협은 매월 한 차례 술 마시는 날을 정해 회포를 풀고 우정을 다지는 기쁨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도 매년 첫눈 오는 날 술 한 병씩을



인터뷰 | II.군포예술상 수상자 - 박헌태

꽤차고 8단지 팔각정 번개팅을 하던 일이 특히 회원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만 해도 국가나 국민들이 문화예술에 이해나 배려가 부족한 시대였다. 고도성장이란 기치 아래 신도시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일에 전력투구를 하는 시대라서, 문화예술은 사치와 한가함으로 치부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예감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박헌태 시인은 시 당국이나 주요 인사들에게 끊임없이 21세기 문화시대의 도래를 역설했고 이듬해 군포 예총도 설립했다. 군포예총의 발족이나 초창기 군포 예술제 '태을제'에 대한 일화와 애환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깡도에서 피어난 『미완의 서정』

사실 박헌태 시인은 경상북도 청도에서 출생하였다. 지금은 청도 북송아, 소싸움과 와인동굴, 운문사 등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당시만 해도 청도는 책이 귀한 산골이라 책을 친구들과 돌려보며 시인의 꿈을 키워왔다 한다. 고향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에 부산의 동아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며 문학청년으로 시낭송회며 시화전 등에 참여하면서 시문학에 몰입하였는데 특히 초현실주의 시인인 조항 선생이 스승이었으므로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조항선생은 까다로운 분이었지만 내게는 너그러우셨어요. 아마도 내가 학교활동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생께서는 내가 졸업을 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자 말리셨어요. 당신이 교수를 했지만 별거 없다고 하시더니 오래지 않아 진짜 학교를 떠나셨지요.”

박헌태 시인은 조항선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자, 선생을 따라 상경하여 김규동 선생의 한일출판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한일출판사는 아리랑, 자유문학 등의 인기잡지를 발행하는 출판사였다. 첫 직장이라 나름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 오륙천 원으로는 점심 먹기도 힘들 정도였다. 더구나 출판사는 야근이 많고 고된 일에 비하여 손에 쥐는 돈이 별로 없었다. 마감을 끝내고 대포 한잔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보니 반 년 만에 그만두고 직접 출판사를 하기로 했다. 현대사조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전장의 여인 나상'이라는 논픽션 소설을 발간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어 꽤 많은 돈을 벌었다. 서른도 안 되어 잡은 행운으로 허파에 잔뜩 바람만 들고 주머니에는 돈이 있다 보니 당시 문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은성이란 목코주점에 출입하면서 유명인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그때 은성을 드나들던 이들 중에는 영화감독 유현목, 시인 김수영, 박인환, 수필가이자 번역가였던 전혜린, 소설가 이봉구 같은 내로라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렇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치기를 부리고 그분들에게 척척 술도 사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다 보니 어느새 출판사가 어려워지고 말았다.

스물아홉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고 서울 삼선교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출판사는 정리를 했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생활이 어려웠다. 때로는 아내가 처형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마침 눈에 번쩍 뜨이는 소식이 있었다. 바로 파독 광부를 모집한다는 공고였다. 3년 계약에 매월 800마르크, 당시 공무원 월급의 1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갓 돌이 지난 아들과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생각하여 곧바로 응모를 했다. 대학 나온 사람은 뽑지 않고 1년 이상 광부 경력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독일로 떠났다. 1970년 8월 20일, 박헌태는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김포공항에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독일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독일에서 전세기를 보내줬습니다. 항로도 없어 홍콩에서 파키스탄, 네덜란드를 거쳐야했기 때문에 비행시간도 길었어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인솔자가 노래를 시켰는데 나는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기내는 순식간에 숙연해지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큼 모두 비장했던 거지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겔젠키르헨 광산으로 배치되었다. 승강기를 타고 1200m를 내려가면 막장이다. 100m를 내려갈 때마다 1도씩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막장에 도착하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극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탄을 캐다. 석 달 만에 막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같은 기숙사에서 가깝게 지내던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장례식에서 박현태 시인은 동료를 추모하는 시를 써서 읽었다.

‘우리는 어쩌다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검은 석탄을 캐다 비명횡사해야 하는가’

그가 조사를 읽자 그 자리에 모인 300여명의 파독 광부들은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광부 일 이외에도 주말이면 잔디 깎는 아르바이트도 했다. 그리고 틈틈이 시를 썼다. 그렇게 쓰여진 시를 1972년 김규동 선생께 보냈더니 시가 좋다고 이산 김광섭 시인의 추천사를 받아 『미완의 서정』이라는 첫 시집을 출간하였다.

아내야

지금 여기는

북해(北海)의 소금가루 날리는

라인강 별판이다

-중략-

아내여 오늘은 영교 민교 녀석 사진은

꺼내어 보고

고향의 꿈을 꾸어야겠다

-중략-

아내야 아빠 없는 아이들은

오늘은 누구랑 노나

시골로 띄운 편지엔 회답이 왔더냐

위의 시는 독일 시대에 쓰인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시다. 사실 박현태 시인은 오랫동안 독일 시절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독일 광부 시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일 게다.

『세상의 문』을 통해 들여다 본 따뜻한 시인 박현태

아내 말로

시커먼 비니루 같은 당신의 속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지금 우리는 비닐의 시대

너나 나나 검정비닐처럼
속을 보여주지 않으며 산다.

색깔이 속물 같아서 그런지
깊이 너무 험해서 그런지
아무리 알아도 보이지 않는 속 때문인지
아무때 어디서나
건습을 불문하고 미추를 구별 않고
공짜로 덤으로 덤씩 담아줘도
아무렇지도 고맙지도 않는-

그래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속에
간칼치 여덟 토막을 썬서 넣고
산본시장 기억자 모퉁이를 나오며
바람보다 더 구차하게
어둑해지는 하루를 걸어서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간다.
-비닐의 시대-

제16시집인 『세상의 문』에 들어 있는 시다. 「비닐의 시대」는 건강치 않은 아내를 대신해 살림살이를 하면서 가까운 산본 시장으로 장을 보러 다니는 시인의 모습이 보인다. 박현태 시인은 여러 해 전부터 부인의 병수발을 해왔는데 지금은 건강을 많이 되찾았지만 계속 가사 일을 돌본다.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의 장보기가 시가 되고



인터뷰 | II.군포예술상 수상자-박헌태

물건을 사면 아무렇게나 담아주는 검은 비닐봉지도 시가 되었다. 검은 비닐봉지는 그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아도, 감추어야 할 것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시 내며, 구차한 삶을 감추지 못한다. 아니 구차한 인격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그 구차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따뜻한 한 인간을 만난다. 경상도 사내의 '치아뿌라' 하는 객기의 뒷면인 섬세하고 여린 심성을 알기 때문이다.

어느 명절을 앞두고 덕을 방문했을 때였다. 박헌태 시인은 아내를 대신해서 손수 과일을 깎고 차를 대접하는데 마침 정수기 관리를 해주는 이가 방문을 했다. 우리들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일을 마친 그이가 가겠다고 하니 시인은 배란다로 나가 사과 서너 알을 들고 나와서 가지고 가라며 손에 들려주었다. 우리가 덕을 나설 때도 어김없이 사과가 들은 봉지를 손에 들려주었다. 흔히 무심하게 지나칠 법한 일이지만 그 따뜻함이 느껴진다. 명절에 후배문인들이 단체 방문을 할 때도 사모님께서 가사에 손을 놓은 지 오래건만 손수 상을 차려 끼니를 대접한다. 술자리에서도 앞자리에 앉은 이의 술잔이 비도록 내버려두는 법이 없다. 이런 것도 배려이리라.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

지역의 여러 행사에서 덕담을 하거나 지역의 명사로 앞장 서는 일들만 보았다면 그저 어려운 어른으로 생각하고 말았으리라. 혹자는 박 시인을 두고 그만 이곳저곳 기웃거리라고 뒷말을 하지만 박

시인이 그 일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다. 알면서도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 둘 끈뎠어져가는 느낌이 싫어서 이러저런 모습으로 세상살이를 기웃거리며 접혀가는 세월에 대한 쓸쓸함이며 버려지지 않는 속물근성이며 그는 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의 말을 빌려 자신을 반성한다. 이러한 반성이 어찌 그만의 몫이겠는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모두 안다. 시인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시인이 다 같은 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는 또 안다. 그럼에도 박헌태 시인은 시인이라는 것을.

이제 시인 박헌태는 군포의 문화예술계의 대명사이다.

군포문인협회의 초창기를 이끌어왔고 군포예총의 설립도 그가 주도한 일이며 포럼 '전통과 미래'를 통하여 군포문학상과 군포예술상을 이끌어 온 것도 박헌태 시인이며 군포에 국립문학관을 유지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고 있는 이도 그이다. 따라서 군포의 모든 문화예술행사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이상하면서도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그에게 이제야 전해진 군포예술상 수상 소식은 너무 뒤늦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담 및 글 김 영 애



김정동예술가, 박찬일 시인

-제8회 군포문학상 수상

시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른다. 십여년 전, 수리샘문학회 강의 시간. 시인으로부터 독일대도시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주의 시대의 도시시와 자연주의 시대의 대도시시를 비교하며 처음 들어보는 홀츠, 켈러 등의 독일 시인들의 시를 읽었다. 어려웠다. 이해되지 않는 시와 관념에 사로잡혀 강의 시간 내내 도서관 창밖 수리산 풍경에 눈길을 쫓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 시인은 이후 여섯 권의 시집을 더 출간했고 이런저런 연구서들을 세상에 내 놓으며 문학적,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예술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계간 <예술가>를 발행하는 등 문단에서의 입지 또한 단단하다.

죽음에 대한 한 연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다

산본 신도시 입주 원주민이기도 한 박찬일 시인은 군포시 김정동에 살고 있다. 시인을 산본 중심지구 책 읽는 카페 '마실'에서 만났다. 제8회 군포문학상 수상 축하 인사를 드리며 군포는 시인에게 어떤 곳인가를 첫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군포는 제 2의 고향이지요. 아마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죽지 않을까 해요. 원광대 병원 장례식장, 그곳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사 나눌 곳이지 싶네요.”(웃음)

아뽤사, 시인은 말끝에 농담인 듯 너털웃음을 덧붙였지만 ‘죽음’에 대한 화두는 그를 비껴가지 않는다. 결국 이 글의 시작은 그의 시 여러 편에 나타나 있는 죽음에 대한 한 연구로부터이다.

세상 바깥을 궁금해 하다

세상 안의 것을 다아 놓친 자.

여기 잠들다

『묘비명 연습-묘비명 연습』시집 『북극점』 수정본 중

시인이 정말 이런 묘비명을 쓰게 될까.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시간 동안 시인이 얼마나 많은 죽음에 천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최초의 죽음에 대한 목도는 춘천중학교 1학년 때라고 한다. 친구 차현민이 과학관 옥상에서 추락한 것이다. 그의 시적 감수성의 시원이 그곳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뷰 | Ⅲ.군포문학상 수상자-박찬일

“나는 차현민을 가끔 생각한다. 아니, 차현민이 가끔 생각난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리고 1983년 2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기도원에 계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와 동생들이 있는 서울로 가는 중이었다. 버스가 천안을 지나고 있을 때 시인의 어머니께서 버스 안에서 임종하셨다. 어머니를 경춘공원묘원에 모셨다.

박찬일 시인의 시를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시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시 전반에 담겨 있다. 그 때 한 세계가 끝이 났고, 불과 몇 년 전에 시인은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또 한 세계가 지나갔다. 그 이후 쓴 여러 편의 시로 『아버지 형이상학』(예술가,2016)을 묶어 냈다. 친필 사인이 된 딱딱따끈한 시집을 펼쳤다.



대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누구더라도 삼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모르셨을 리 없다
몰락해 주리라, 자발적 몰락의지가 유일한 수순인 것
동일한 것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순서로 영원히 반복되어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주리라 영원히 반복해서 기꺼이 몰
락해 주리라
아버지가 평소 안 하셨을 리가 없다
하늘이 부정되는 지역, 하늘이 하늘이 부정되는 것 말고
더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영원한 몰락에의 의지가 유일한 수순인 것을
아버지가 모르셨을 리 없다
만나보자~그때 그날 천국에서
대저 지상에서 부르는 마지막 맹세,
만나보자~아버지가 말하셨을 리 없다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어디 갔나,
아버지는 영원히 되풀이해서 몰락해줄 것을 요청하셨다
아버지를 믿는다
몰래 돌아가실 리 없는 아버지시다
「아버지 형이상학」

표제인 아버지 형이상학의 전문이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주가 몰락하는 것과 같다.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아버지의 죽음은 실존적으로 아주 긴박하게 다가온 진리, 즉 나의 몰락을 선언한다. 그러나 나의 몰락은 끝이 아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진 죽음은 자발적 몰락의지에서만 순화되고 영원히 반복해서 몰락하고 있는 존재의 세계는 동일한 것이 영원히 회귀하는 지상의 세계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영원한 몰락이 극복되는 세계는 존재의 세계와 차원이 다른 세계이다. 시인은 지상과 다른 세계, 즉 비존재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철학자들이다. 박찬일 시인은 시적 형이상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 비존재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해석하면서, 존재의 비밀을 열어주는 메신저이다.

「시에서 철학적 사유로-시인 박찬일의 시적 형이상학 이해하기」박순영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해설이다. 시인이 군포의 의미를 답하면서 꺼낸 죽음의 화두가 새로 펴낸 시집의 세계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그의 시는 어렵다. 특히 철학적 인식을 언어로 표현하는 최근작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다.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시를 쓰면 어떻겠느냐는 바람을 담은 말을 끝으로 죽음의 화두에서 벗어나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춘천, 그곳은

시인에게서 춘천에서 보낸 유년기에 대해 듣고 싶었다. 춘천에는 이승훈, 최승호, 박찬일 등 몇 분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박찬일 시인 하면 춘천을 떠올린다. 물론 군포 수리산과 반월호수에도 박찬일 시인의 작품이 있어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시가 읽혀지고 있다.

횡성에서 태어난 시인은 교직생활을 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흥천을 거쳐 춘천에 자리잡았고 그 곳에서 유년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교육열이 높았던 시인의 어머니 덕분에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춘천중학교 시절에는 전교 1등을 거의 도맡아 하곤 했다. 처음으로 시를 쓴 게 언제냐는 질문에 조금은 쑥스러운 듯이 시인이 대답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깨쳤어요, 그 때는 봄에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 백일장을 했어요. 그 때 쓴 시가 ‘봄비는 봄의 생일’이라는 시구가 들어가는 것인데 선생님이 칭찬을 해 준 기억이 나는 걸 보니 아마 그 시가 최초의 시가 아니었나 싶네요.”

유치원 때 첫 시를 쓰다니, 그것도 봄비에 대한. 얼굴 하얀 소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끄적였을 첫 시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시인은 춘천을 생각하면 술을 많이 마셨던 고교시절이 우선 떠오른다고 했다. 교장선생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매일 같이 나간 그곳, 춘천의 팔호광장.

나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초부터 매일 저녁 춘천의 팔호광장 한 귀퉁이에서 술을 마셨다. 첫잔을 나는 잊지 못한다 『춘천, 마음으로 찍은 풍경』 중

그는 왜 매일 술을 마셨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단정한 교복을 벗어 놓고 팔호광장으로 달려가게 한 것일까. 시인이 표현하기를 그 시절 자신은 참 이중적인 녀석이었다고 했다. 일찌감치 한글을 깨친 유치원생이 쓴 첫 시 구절 ‘봄비는 봄의 선물’을 보라. 그 천재성이 술을 마시게 했을까. 아니면 너무 일찍 보아버린 친구의 죽음, 그 힘들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것일까. 시인은 머리가 아팠다. 숨이 턱턱 막히고 입이 마르는 증상, 병명은 지금으로 보면 공황장애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였을까. 그것보다는 예민한 유전자를 타고 났다고 시인은 말한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선, 가족에 대한 불만, 결과 속이 다른 어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 같아서 그는 술을 마셨다. 안주도 없이 맹물로 술을 마셨고 어쩌다 그들의 아지트였던 골방이란 곳에서 강통에 든 콩치를 끓여 먹기도 했다던, 그 시절 춘천고등학교 특별반 학우 중 박찬일 시인 때문에 대학을 못 간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시인은 공부를 잘 했고 철학과 문학책을 닦치는 대로 읽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문예반장을 하면서 춘천여고 학생들 앞에서 시낭송을 했으며 이낙봉, 양승준 시인과 함께 셋이서 ‘너희들’이란 동인지를 내기도 했다. 1회에 그쳤지만 그 경험은 대학에 들어가 이낙봉 시인과 춘천 ‘이디오피아의 집’에서 2인 시화전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제2외국어였던 독일어 성적이 전국모의고사 1, 2등을 유지했으니 연세대 독문과로 진학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리라. 시인은 독문과에 진학한 후 다른 학우들이 독일어를 못 하는 것을 보고 4년 내내 술만 마셨다고 했다. 춘천에서의 술이 서울로 이어진 것이다. 시인은 춘천의 그 시절을 떠올리기 싫다고 한다. 그 때 조금 덜 방황했다면 훨씬 풍성한 청년기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다. 그의 청춘을 생각하면 술은 때려야 뗄 수 없다. 엄청난 술을 마시며 팔호광장을 가로질러 달리던 곳. 춘천은 힘든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했지만 시인의 문학적 산실이 된 곳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찬일 시인의 위버멘쉬-문학 또는 시

시인으로서의 박찬일과 문예창작과 교수로서의 책무 사이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리라 짐작이 되었다. 특히 추계예술대학에 재직하면서 시인은 문학과 더불어 철학에 많이 경도되었다. 연대 독문과 시절에도 철학이 부전공이었다는 시인.

“처음에는 독문학 한 걸 후회했지요. 베르톨트 브레히트나 파울 첼란 등의 시인을 만나기는 했지만 독문학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니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독일어를 잘 했구나 싶었죠. 독일 철학자들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지요.”

군포중앙도서관 나무인문학 특강으로 박찬일 시인의 『비극의

인터뷰 | Ⅲ.군포문학상 수상자-박찬일



탄생』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었었다. 시인은 ‘디오니소스적’은 비극적 상황이 가장 인간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비극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유일한 본질인 ‘현재’ 그 자체에 취해 버리는 태도이다. 시인의 시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긍정적 인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또 하나, 시인 박찬일을 이야기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니체의 초인, 즉 위버멘쉬의 의미. 시인은 니체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공황장애나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한다. 자발적 몰락의지로 표상된, 죽음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초인의 의미를 가슴에 각인시켰다.

시인은 말한다.

위버멘쉬는 또한 모든 것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이다. 그러므로 ‘한 번뿐’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결부시키려는 자이다. 매 순간이 그에게는 끝이요, 시작이다. 위버멘쉬는 그리고 그 한 번이 영원히 되풀이 된다고 인식한 자이다. ‘한 번’을 살아낸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해서 회귀하게 된다면 한번을 살아내는 그때그때마다의 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영겁회귀’의 핵심은 그러므로 똑같은 것이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데에 있지 않다. 똑같은 것이 그 후 영원히 다시 되풀이되므로 순간순간을 최대한도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인으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요즘 그는 매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마다 추계예술대 문창과에서 신춘문에 당선자가 나온다. 2017년 서울신문 시부문 당선자 신동혁 군의 당선소감에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박찬일 교수님’이란 구절에서 시인이 제자들을 향해 많은 열정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추계에 자리 잡고 난 후부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 비결을 물었다.

“등단을 하는 이들은 흔히 얘기할 때 선수들이죠. 말하자면

강의시간에도 두각을 나타냈던 학생들이는데 그들은 간절하고 또 간절해요. 그들에게는 문학이 하나의 스펙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취업을 위해 이런저런 자격증을 준비할 때, 문학이란 나무에 치열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이다. 특히 2016년 같이 혼란스럽고 망연자실한 정국에 문학이라니...

시인에게 묻는다. 이런 시대에 문학이, 시가 위로가 되는 것인지, 사람들을 위무하고 치유할 힘이 문학에 남아 있는 것인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이 전 지구를 삼켜버리고 있는 지금, 즉 무한경쟁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지는 자이죠. 지는 자에 대한 배려가 복지정책으로 구현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때일수록 문학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적이 많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나 물질적 궁핍이 올 때 기대는 것은 정신인 거죠. 문학의 본질은 인간주의예요. 마침내는 문학정신이 이 시대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적인가?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금정동 예술가, 시인 박찬일

문단이나 출판계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박찬일 시인은 계간 <예술가>를 27호까지 발간해 냈다. ‘반항, 예술가의 혼이다’라는 구호 아래 2010년의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7년 봄호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예술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예술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부자유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쓰기는 이를 위해 존재한다. 박찬일 시인은 <예술가>에 실리는 시편들이 좀더 새롭고 젊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를 대거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술가>의 앞날이 창대하리라 여겨졌다.

박찬일 시인은 군포시 금정동 850번지 산본1단지에 살고 있다. 시인은 계속 금정동에 살아야겠다며 이런 시를 쓰기도 했다.

쓰레기 버리기는 한 순간

자연환경 복구는 한 평생

— 바르게살기운동 금정동 위원회

웃긴다

내 인생의 평생 수칙은 규칙 규율 위반이었다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라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었다

계속 금정동에서 살아야겠다

금정동의 규율 규칙을 삼켜야겠다

쓰레기 버리자가 아니다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다 비스듬히 사는 것이라면

비스듬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금정동 예술가」전문

오롯이 박찬일 시인의 시세계에 대한 평론만으로『상징에의 저항』이란 책을 낸 김석준 평론가는 위 시「금정동 예술가」를 이렇게 말한다.

미(美)란 규범과 질서의 내부에서 움터오는 평화를 비스듬히 세우면서 질서의 바깥으로 내달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미란 위반이 펼쳐내는 아름다움이다. 질서에 빗금을 치면서 질서 밖으로 모든 의식을 탈주시킬 때, 예술의 창조적 지평은 새롭게 현시된다. 박찬일의「금정동 예술가」는 위반을 예술의 창조적 심급으로 바로 세우면서 일탈이 펼쳐내는 예술적 금기의 세계로 빠져드는 아이러니적 상황을 절묘하게 연출하고 있다. 즉, 금기와 규율을 삼켜버리고 깨트리면서 새로운 미의 전범이 창조되는 예술의 운동성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스듬히 사는 것은 계간 <예술가>의 정신과도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박찬일 시인의 주변에는 오래도록 지켜보며 그를 증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기꺼이 박찬일의 편이 되어 아프리카까지 동행하겠다는, 아프리카에서 마국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그들은 파편적인 글쓰기, 난해한 시세계를 통해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 다른 측면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시인 박찬일과 함께 할 것이다. 그는 금정동에 사는 예술가이다.

대담 및 글 오은희





아름다운 '비상'을 꿈꾸다 - 그리고 김문선 대표의 이야기

군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팀 중비상은 아름다운 청년 국악관현악단이다.

'비상'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뿌리 깊은 우리 전통문화음악의 멋을 토대로 우리음악을 생활 속에 함께 하고자하는 가치아래 2002년 12월 창단 이후로 왕성한 연주활동과 국악의 저변화와 음악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에 가장 빛나는 우리 음악으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퓨전국악예술단체입니다.

처음 시작은 2001년에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 월 3만원의 회비로 친목을 도모하는 국악 관현악주자들의 모임이었다. 한 달에 한번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청년 국악인들의 고충을 나누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서로의 길잡이가 되기로 했다. 이왕 모인 바에 뜻있는 일을 해보자하여 2002년 12월에 8명의 단원들이 엘림복지관을 찾아가 자선공연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군포만이 아닌 이곳저곳에 살던 회원들이 모였는데 마땅히 공간도 없어서 방배동 노인정을 사용하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연습을 하기도 했다. 우연한 기회에 모임의 존재를 알게 된 이선영 전 국악지부장은 군포에 터를 잡고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며 손을

내밀어 '비상' 단원들이 국악협회에 가입하게 되고 지금은 대야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한다. 처음 '비상'팀의 1대 대표는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김옥선 단원이 맡았는데 출산 이후에 시로 들어가면서 2대로 김문선 단원이 대표가 되어 현재 15명으로 계속 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보금자리나 관현악단에 일을 떠나는 회원들이 생기면서 기존 회원에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했다. 공연을 할 때면 경우에 따라서 객원연주자를 초빙했다. 소리나 타악기는 개인 전수나 동아리형태로 전수가 이루어지지만 관현악단은 대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이다. '비상' 역시 전공자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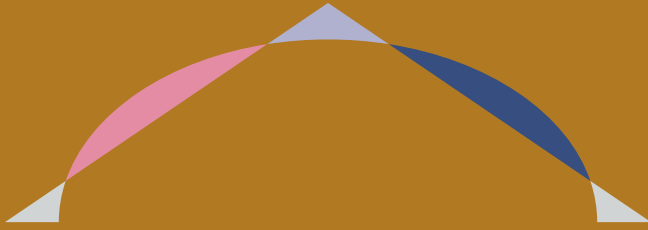
'비상'의 활동은 국악협회의 정기공연 3회와 문화센터 소극장 상설공연, 학교교실음악회, 정월대보름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경기 국악제 축하공연, 젊은 우리음악축제, 타지역의 축제와 한옥마을, 운현궁, 민속촌 등의 상설공연 무대에서도 꾸준한 연주활동을 해왔다.

국악의 관현악기들은 자연을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 소리가 유유히 흐르는 자연의 소리를 닮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능을 한다. 피폐해진 심리를 치료하거나, 태고 등에 사용되며 자연스럽게 치유와 명상 음악으로 쓰인다. 또 서양악기나 서양음악과도 잘 어우러져 국악을 멀리하는 젊은이에게도 친근한 연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비상'도 퓨전음악 연주를 자주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음악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 또한 관현악단은 화음을 중시하다보니 개인적 기량을 연마할 기회가 줄어들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원들이 스스로의 기량을 키워나가는 일은 혼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30대로 접어든 단원들은 출산과 육아로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연주활동을 계속하려니 공연 때면 모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집안이 다 모여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다. 사실 20대에는 연주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았지만 30대로 넘어오면서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의 시기가 생겨 강의는 늘었지만 연주무대는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무대를 만들고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김문선 대표는 남편인 유형렬 타악주자와 함께 협연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서로 추구하는 음악적 세계가 다르다. 유형렬은 퍼포먼스를 중시하며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노력하는 편이지만 김문선 대표는 정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음악을 지키고 싶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상생하는 두 단체의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두 팀 안에서 커플이 여럿 생겼다.

그동안 '비상'의 활동에 김문선 대표 배우자인 유형렬(타악주자)이 한몫을 했다. 유형렬과 김문선은 전혀 다른 악기주자로 완전히 별개의 단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원군의 역할을 해준다. 유형렬, 김문선이 만난 것도 처음 협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을 다닐 때였다. 당시 유형렬은 '야단법석'이라는 팀으로 종로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팬들도 많았다. 이 시기에 둘은 함께 응원을 하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추억들을 쌓아가며 사랑을 키워갔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따라 다니는데 인상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주변의 어른들께서 그 남자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모른다면 적극 추천을 해주시고 지내다보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차차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면서 봐도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아빠의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남편으로도 그렇고 일에서도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김문선 대표의 말이다. 비상의 대표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남편 유형렬의 외조가 컸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세계를 지키는 동시에 함께 공유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상적인 관계인 것 같다.

‘비상’은 나름의 색깔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 33개의 국악지부가 있지만 군포지역처럼 기악분과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벤트나 지원 없이 꾸준하게 10여년 이상 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 편안하게 가족 같이 지내왔고, 팀내에는 음악 감독이 따로 있어 음악을 만들어 주고 회원관리를 해주는 단원이 있으며 역할을 나누지 않아도 스스로의 일을 찾아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15주년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 새로운 단원의 영입은 주변의 소개로 함께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리를 잡거나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다.

‘비상’의 단원들은 연주를 통해 출연료를 받기도 하지만 단원 대부분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사풀에 등록되어 있어서 학교에 국악수업을 나가거나 특성화 학교에서 악기 별로 교육활동을 하는 한편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강사료가 주된 수입원인 셈이다.

군포의 자랑인 ‘비상’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군포의 문화예술을 위하여 수혈된 젊은 피의 역할을 감당하며 군포만의 특별한 예술단체로 성장 발전함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지역문화발전에도 기여하는 단체로 당당하고 우뚝하게 서기를 응원한다.

대담및글 김영애



